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금강철강(053260)

소재

요약
기업현황
시장동향
기술분석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한국기업데이터(주)

작성자

최준호 선임전문위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기업데이터(주)(TEL.02-3215-255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IR협회

금강철강(053260)

POSCO 냉연제품 전문 Service Center - 가속분뇨 처리사업 성장 전망

기업정보(2020/11/20 기준)

대표자	주광남·주성호(각자)
설립일자	1977년 01월 12일
상장일	2002년 01월 04일
기업규모	보호대상중견기업
업종분류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주요제품	냉연강판, 가속분뇨 처리 및 액비 생산 외

시세정보(2020/11/30 기준)

현재가(원)	3,305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620억 원
발행주식수	18,720,000주
52주 최고가(원)	4,050
52주 최저가(원)	2,220
외국인지분율	1.98%
주요주주	주광남, 주성호, 지금련

■ POSCO 냉연제품 전문 가공센터

금강철강 주식회사(이하 ‘동사’)는 1차 형태의 각종 철강재를 산업 전반에 공급하고 있는 POSCO의 가공센터로, 냉연코일을 자동화 기계설비를 갖추고 수요자가 원하는 규격으로 전·절단 가공하여 공급하고 있는 업력 43년의 전문 가공센터이다. 2006년, 2007년에 ㈜푸드사이언스와 농업회사법인 금강에코너지㈜를, 2015년에는 케이인베스트먼트㈜를 계열회사로 편입하여 사업부문을 다각화하였으며, 2015년에 각자대표이사 체제(주광남, 주성호)로 전환하였다. 철강부문을 제외하면 아직 다른 사업부문의 매출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나, 액비 관련 사업은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냉연강판 Shearing & Slitting, 가속분뇨 처리 기술 보유

동사는 핵심 기술역량으로 냉연강판 Shearing & Slitting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Shearing은 포스코에서 생산된 코일을 판재로 만드는 가공 기술로, 동사는 Shearing 공정 관련 언코일러 → 레벨러 → 전단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라인화된 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Slitting 공정 관련 15~1,860mm의 폭을 갖는 강판을 분당 150~230m의 속도로 연간 약 396,000톤 연속 가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어 치수 정밀도와 평탄도 확보는 물론, 깔끔한 단면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자회사를 통해 가속분뇨 고액 분리 및 슬러지 처리 관련 특허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 자회사의 가속분뇨 처리 사업은 전망이 밝은 편

자회사의 가속분뇨 수거, 처리 및 액비 사업은 서비스 및 제품가격이 점차 상승하고 있다. 퇴비의 경우 수년간 변화가 없지만, 분뇨 수거·살포의 경우 2013년부터 연평균 10.41% 증가하여 2020년 톤당 30,000원 수준이다. 가속분뇨 처리는 폐기물 처리 산업에 속하기 때문에 정부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폐기물 처리업체의 설비투자가 뒤따르고 이는 처리단가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특히, 경쟁업체가 제한적이고 후발주자 또한 진입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수요자보다는 처리업체가 협상의 우위를 선점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며, 가격 전가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순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7	1,972	21.20	36	1.84	30	1.51	2.79	2.25	20.95	162	6,270	22.72	0.59
2018	1,950	-1.10	15	0.77	53	2.70	4.86	3.99	22.33	282	6,550	13.52	0.58
2019	1,713	-12.16	22	1.26	44	2.56	4.00	3.25	24.10	235	6,669	15.12	0.53

기업경쟁력

기술경영

- 다양한 종류의 철강재를 가공할 수 있는 인력과 라인화된 설비 보유, 핵심기술은 Shearing & Slitting 기술
- 가축분뇨 처리를 통한 액비(유기질비료) 생산 기술 보유

유망사업 추진

- POSCO의 냉연강판 가공센터
- 가축분뇨 처리단가는 최근 들어 상승 중
- 제주도의 가축분뇨 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액비 품질 기준 강화로 자회사의 사업은 성장세 전망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핵심기술

- 철강재 Shearing 기술
레벨러, 전단기, 언코일러 등이 모두 연결 및 자동화되어 있어 치수 정밀도와 평탄도 확보는 물론, 깔끔한 전단면 확보 가능
- 철강재 Slitting 기술
권취 이전 당김 현상을 방지하는 루퍼와 라인화된 설비를 통해 정밀도 확보, 안산공장에서 15~1,860mm의 폭을 갖는 강판을 분당 150~230m의 속도로 연간 약 396,000톤 연속 절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가축분뇨 처리 및 액비 생산 기술 보유
석회질 비료 생성기, 미생물 활성화에 의한 오염물질 제거공정, 액비 생성이 최적화되어 있어 높은 슬러지 처리 및 비용 효율성 확보

적용제품

취급제품



일반냉연 강판



고강력강



법랑용 강판



구조용 강판

매출비중

■ 사업부문별 매출 비중(2019년)

제품군	매출액(백만 원)	비중
제조 - 철강매출	103,340	60.30%
제조 - 액비매출	1,025	0.60%
판매 - 상품매출	62,294	36.40%
임가공 - 가공매출	4,186	2.40%
임대 - 임대수익	493	0.30%
총 합계	171,338	100%

시장경쟁력

국내 주요 기업(전방 산업)

■ 2019년 기준 포스코는 세계 5위의 철강사(단위 : 천 톤)

순위	업체	국가	생산량
1	아르셀로미탈	룩셈부르크	97.3
2	바오우그룹	중국	95.5
3	일본제철	일본	51.7
4	HBIS그룹	중국	46.6
5	포스코	한국	43.1

국내 시장규모(철강 절단제품)

연도	시장규모(억 원)	성장률
2013년	74,059	연평균 ▲1.61%('13~'18) (출처: 통계청)
2015년	69,243	
2018년	80,233	

국내 시장규모(가축분뇨 처리)

연도	시장규모(억 원)	성장률
2013년	575	연평균 ▲11.93%('13~'18) (출처: 통계청)
2015년	726	
2018년	1,010	

최근 변동사항

철강 사업부문 실적 감소

- 매출실적은 최근 3년간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철강제품의 매출은 꾸준하였으나, 철강상품의 매출이 감소
- 가축분뇨는 규모는 작지만 꾸준히 성장 중

향후 전망

■ 동사의 사업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철광석 시세는 최근 5년간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고점을 갱신하고 있음. 또한, 가축분뇨 처리단가는 최근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사업실적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I. 기업현황

POSCO 1차 협력업체, 냉연강판 전문 유통 및 가공업체

동사는 1977년 1월에 설립된 POSCO 가공센터로, 철강재의 가공 및 판매, 가축분뇨 처리 및 액비 생산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철강재 관련 Shearing 및 Slitting 기술과 자회사를 통해 최적화된 가축분뇨 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광남·주성호 각자대표이사 체제로 비교적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 개요

금강철강 주식회사(이하 ‘동사’)는 1차 형태의 각종 철강재를 산업 전반에 공급하고 있는 POSCO의 가공센터로, POSCO의 냉연강판 판매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내 철강회사 중 몇 안 되는 24시간 생산과 출하체제를 갖춘 기업이다. 철강 수요가 많은 지역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자동차, 가전, 건설, 산업용기 등의 산업원자재인 냉연코일을 자동화 기계설비를 갖추고 수요자가 원하는 규격으로 전단 및 절단 가공하여 공급하고 있는 업력 43년의 전문 가공센터이다. 1977년 1월에 설립된 후 2002년 1월 코스닥 시장에 등록되었으며, 2006년, 2007년에는 (주)푸드사이언스와 농업회사법인 금강에코너지(주)를, 2015년에는 케이인베스트먼트(주)를 계열회사로 편입하여 사업부문을 다각화하였으며, 2015년에 각자대표이사 체제(주광남, 주성호)로 전환하였다. 주력사업인 철강부문을 제외하면 아직 다른 사업부문의 매출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나, 액비 관련 사업은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주주현황, 연결 및 관계회사

연결 및 관계회사는 투자 전문업체인 케이인베스트먼트(주)와 가축분뇨 수집 및 액비 생산업체인 농업회사법인 금강에코너지(주) 및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인 (주)푸드사이언스가 있으며, 회장이자 최대주주인 각자대표이사 주광남의 보유 지분(30.44%)과 각자대표이사인 주성호를 비롯한 가족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하면 53.31%이다.

[표 1] 주요 주주, 연결 및 관계회사 현황

주요 주주	주식수(주)	지분율(%)	연결 및 관계회사	업종
주광남	5,698,400	30.44	케이인베스트먼트(주)	투자업, 경영자문 및 컨설팅
주성호	2,874,344	15.35		
지금련	971,732	5.19		
주혜영	419,730	2.24	농업회사법인 금강에코너지(주)	가축분뇨 수거 및 처리, 기능성 액비 생산
주필립	8,000	0.04		
주태오	8,000	0.04	(주)푸드사이언스	기능성 식품 생산, 바이오 관련 제품의 연구개발
기타 및 소액주주	8,739,794	46.70		
합계	18,720,000	100.00		

*출처: 금강철강 2020년 분기보고서(3Q)

■ 대표이사 정보

각자대표이사이자 회장인 주광남(1944년생, 남)은 동사의 창업자로, 인하대학교 조선공학과를 졸업한 후, 연세대학교에서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동종업계인 일신제강(주)에서 기술 관련 업무에 종사하다가 1977년 1월 동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경영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동업계에서 4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철강산업과 관련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핵심 거래처인 (주)포스코와의 원만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활발한 대외활동을 수행중에 있으며, 철강재 생산에서부터 경영자문 및 투자, 액체비료 생산, 기능성 식품 생산 등 사업부문 다각화를 주도하고 있다.

■ 주요 기술역량

동사는 핵심 기술역량으로 Shearing & Slitting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동사가 취급하고 있는 냉연 및 열연강관은 전·절단 공정을 거쳐 전국 각지의 서비스센터로 납품된다. Shearing은 포스코에서 생산된 코일을 판재로 만드는 가공 기술로, 동사는 Shearing 공정 관련 언코일러 → 레벨러 → 전단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라인화된 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Slitting 공정 관련 15~1,860mm의 폭을 갖는 강판을 분당 150~230m의 속도로 연간 약 396,000톤 연속 가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어 치수 정밀도와 평탄도 확보는 물론, 깔끔한 단면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자회사를 통해 고액 분리 및 슬러지 처리 관련 특허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 매출 비중

동사의 사업부문은 제조 - 철강매출, 제조 - 액비매출, 도매 - 상품매출, 임가공 - 가공매출, 기타 - 임대수익으로 구분되어 있다. 철강매출은 (주)포스코로부터 주요 원자재인 냉연강관, 산세도유강관, 아연도금강관 등을 구입하여 소정의 크기와 폭을 갖도록 전단(shearing) 또는 분단(slitting) 가공한 후 거래처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이고, 액비매출은 관계회사인 농업회사법인 금강에코너지(주)가 가축분뇨를 수집, 고액분리 및 발효, 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이다. 상품매출은 (주)포스코로부터의 구입한 철강재를 별도의 가공작업 없이 거래처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이며, 가공매출은 거래처가 구매한 자재를 전단 또는 분단 가공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이다. 2019년 기준 매출액은 171,338백만 원으로, 제품 약 63%, 상품 약 36%, 기타 약 1%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사업부문별 매출 추이 및 비중

단위 : 백만 원

품목	2020 (제44기 3분기)		2019 (제43기)		2018 (제42기)		2017 (제41기)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제조 - 철강매출	70,613	57.2%	103,340	60.3%	99,802	51.2%	117,941	59.8%
제조 - 액비매출	727	0.6%	1,025	0.6%	1,062	0.5%	731	0.4%
판매 - 상품매출	49,396	40.0%	62,294	36.4%	89,348	45.8%	73,981	37.5%
임가공 - 가공매출	3,058	2.5%	4,186	2.4%	4,366	2.2%	4,124	2.1%
임대 - 임대수익	374	0.3%	493	0.3%	470	0.2%	432	0.2%
합계	124,169	100.0%	171,338	100.0%	195,048	100.0%	197,20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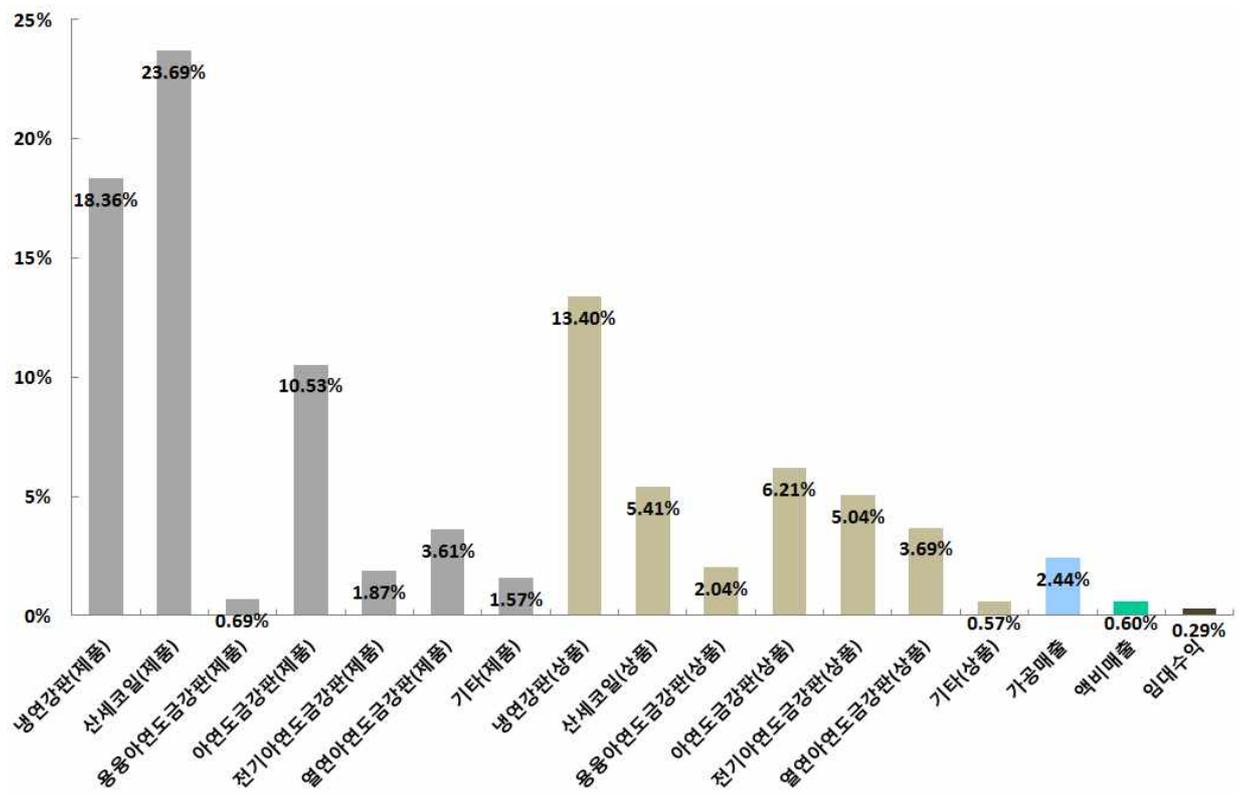
*출처: 금강철강 연도별 사업 및 분기보고서, 한국기업데이터 재구성

■ 주요 제품

동사는 냉연강판, 산세도유강판, 아연도금강판, 열연강판 등 용도별·특성별로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자동차 및 가전제품 등으로 적용되는 제품 특성상 후판보다는 박판이 많다. 냉연강판은 표면이 미려하고 가공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고급 철강재로서 산업 전반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일반 냉연강판은 냉장고 도어, 드럼, 가구 제작 등에 쓰이며, 자동차용으로는 오일 팬, 후드, 루프 등의 소재로 사용된다. 고장력강은 자동차의 시트 부품이나 브레이크 부품 및 보강재 등으로 사용되고, 법랑용 강판은 스틸 캔, 가전제품, 주방용기 등에 이용되며, 구조용 강판은 강도가 요구되는 강구조물 등의 분야에 적용된다.

한편, 열연강판으로는 구조용 강판, 자동차 구조용 강판, 유정관용 강판, 내후성 강판 등이 있으며, 구조용 강판은 철 구조물, 교량 및 선박 등에 사용되고, 자동차 구조용 강판은 용접성이 우수한 제품으로, 프레임, 휠 제작에 사용되는 자재이다. 유정관용 강판은 내파괴성, 고용접성, 고장력 등의 엄격한 품질이 요구되는 제품으로, 극한지역이나 해저유전 등의 분야에서 이용되며, 내후성 강판은 특수 원소인 인(P), 구리(Cu), 탄소(C) 등을 첨가하여 내식성을 개선시킨 강판으로, 특수차량이나 건축 구조물 등에 적용되는 제품이다. 다양한 형태의 냉연 및 열연강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제품은 자동차 내판 및 구조용, 건축자재용 등으로 사용되는 산세도유강판(제품)으로, 2019년 기준 약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냉연강판(제품)이 약 18%, 아연도금강판(제품)이 약 11%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그림 1] 제품 및 상품 종류별 매출비중



*출처: 금강철강 2019년 사업보고서 한국기업데이터 재가공

Ⅱ. 시장 동향

철강 산업은 변동성, 가축분뇨 처리 관련 산업은 전국 및 제주도 모두 성장세

철강 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성장세가 높지 않지만, 2021년에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 산업은 환경규제의 강화, 처리단가 상승 등의 요인에 힘입어 시장 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세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 내재되어 있으나 가축분뇨 관련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가 전망된다.

■ 철강 산업의 특징

철강 산업은 자동차, 조선, 기계, 건설 및 방위산업을 비롯한 전 산업에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원자재(철광석, 철 스크랩 등)를 이용하여 붕, 형강, 판재, 강관 등의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며, 제철 및 제강업,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철강관 제조업, 표면처리 및 절단제품 제조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철광석과 유연탄 모두 수입 의존도가 높아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재료 확보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며, 동사를 비롯한 전체 철강업체의 사업실적은 원재료의 시세와 공급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철강 산업의 공급망은 사용하는 원재료와 노(furnace)의 종류(철광석과 코크스는 고로, 철 스크랩은 전기로)에 따라 공급망이 달리 구성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제철소 → (서비스센터) → 각 산업군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고로를 보유한 (주)포스코와 현대제철(주), 전기로를 보유한 KG동부제철(주), 동국제강(주), 한국철강(주) 등으로부터 강판, 형강, 붕강, 선재 등이 공급되고 있다.

[그림 2] 철강 산업 계통도



*출처: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산은조사월보 제777호(2020년 8월)

철강 산업은 대규모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 생산규모가 확대될수록 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가 큰 산업이며, 원자재 산업, 에너지 산업, 건설업 등의 후방산업과 자동차, 조선, 기계, 가전 등의 전방산업 사이에서 기초 소재를 제공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전후방 연관 효과가 매우 높은 산업이다. 제선, 제강, 연속주조 등 핵심 공정기술의 활용에 따라 주도권이 바뀔 수 있는 산업으로, 공정기술 혁신이 조업도 향상, 생산공정의 단축, 생산 고도화의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산업이다.

■ 세계 철강 산업의 동향

세계 철강 산업은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중국 경제가 고성장하는 동안 철강 산업도 동반 성장하였으나, 개도국 설비 확장에 따른 공급과잉 등이 겹치면서 구조적으로 성장정체 국면에 진입하였다. 선진국 및 중국의 설비 감축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중국 제외)들의 공격적인 설비 확장 영향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가동률은 73.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초과생산능력 규모는 연평균 6.2억 톤).

수요정체 및 공급과잉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철강 설비투자 증가세는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철강 생산능력은 전 세계적인 철강설비 감축 추진에 따른 2015년 이후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2019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공급과잉이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경기 침체와 코로나19에 따른 수요부진 등의 영향으로 2020년을 정점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중동·아프리카 등 개도국(중국 제외)들이 생산능력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며, 유럽·북미 등 선진국의 생산능력 증가 규모는 소폭에 그치고 있다.



한편, 글로벌 철강 업체들은 시장지배력 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전 세계 조강생산량 중 글로벌 상위 5개 철강업체 비중은 2010년 16.5%에서 2019년 17.9%로 확대되었으며, 아르셀로미탈(룩셈부르크)은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바오우그룹은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HBIS그룹은 연간 46.6천 톤을 생산하면서 우리나라의 포스코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글로벌 상위 5개 철강업체 조강생산량 변화

단위 : 천 톤

2010년				2019년			
순위	업체	국가	생산량	순위	업체	국가	생산량
1	아르셀로미탈	룩셈부르크	98.2	1	아르셀로미탈	룩셈부르크	97.3
2	바오우스틸	중국	37.0	2	바오우그룹	중국	95.5
3	포스코	한국	35.4	3	일본제철	일본	51.7
4	일본제철	일본	35.0	4	HBIS그룹	중국	46.6
5	JFE	일본	31.1	5	포스코	한국	43.1

*출처: 세계철강협회

■ 국내 철강시장 동향

우리나라의 조강 생산량은 2019년 기준 71,411천 톤으로, 2015년 69,672천 톤에서 2019년 까지 연평균 0.62%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세계 5위의 철강 생산국으로, 세계 조강 생산량의 4%를 차지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등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인해 2020년 1~9월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7.7% 감소한 49,551천 톤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0년 전체 생산량도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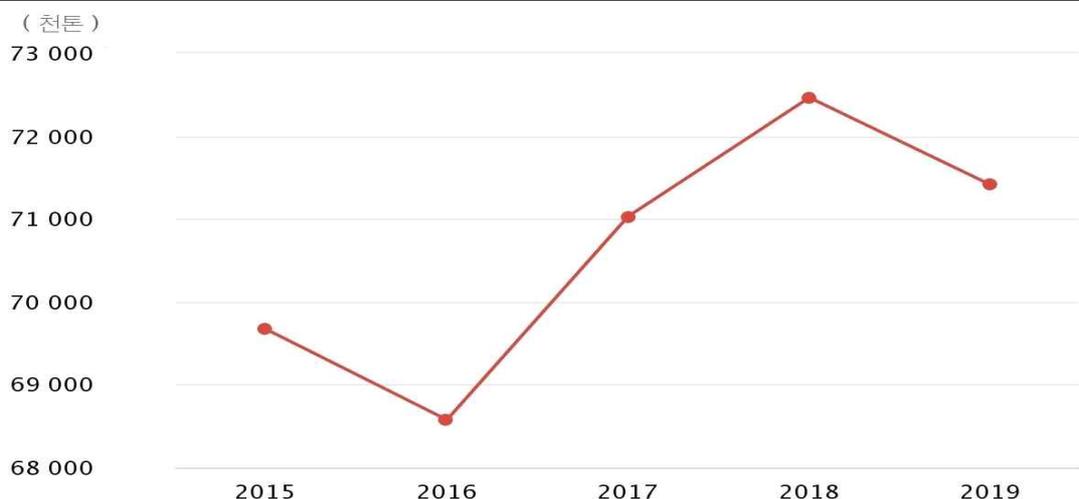
[표 4] 연도별 국내 조강 및 주요 강판 생산량

단위 : 천 톤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E)	CAGR
조강	69,672	68,576	71,031	72,464	71,411	66,068	0.62%
냉연강판	10,128	9,908	9,826	10,004	9,687	8,645	-1.11%
열연강판	17,536	17,606	16,768	16,965	17,767	16,863	0.33%
용융아연도금강판	7,798	8,147	8,439	8,117	8,161	7,195	1.14%
전기아연도금강판	1,548	1,722	1,849	1,765	1,635	1,545	1.38%

*출처: 한국철강협회

[그림 5] 국내 연도별 조강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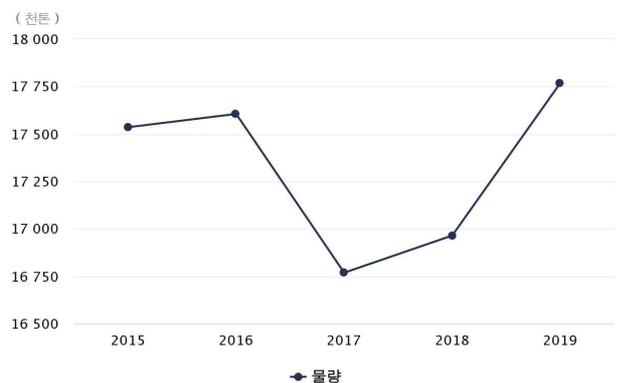
*출처: 한국철강협회

동사가 주로 취급하고 있는 제품인 냉연강판은 2019년 기준 9,687천 톤으로, 2015년 10,128천 톤에서 2019년까지 연평균 1.11% 감소하였다. 2020년의 경우 1월부터 9월까지의 생산량이 6,484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0% 감소하였으며, 2020년 전체 생산량도 조강 생산량과 마찬가지로 감소세가 예상된다. 또한, 열연강판은 2019년 기준 17,767천 톤으로, 2015년 17,536천 톤에서 2019년까지 연평균 0.33% 증가하였다. 2020년의 경우 1월부터 9월까지의 생산량이 12,647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하였으며, 2020년 전체 생산량도 조강 생산량과 마찬가지로 감소세가 예상된다.

[그림 6] 국내 연도별 냉연강판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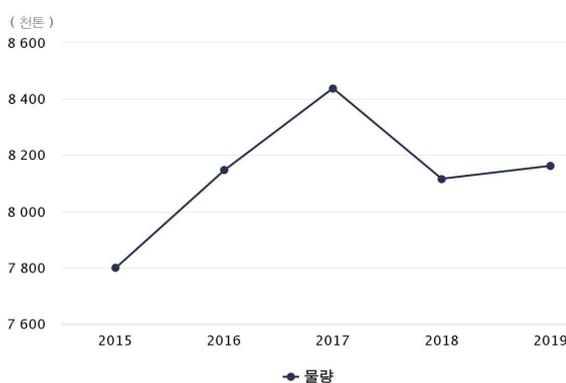
[그림 7] 국내 연도별 열연강판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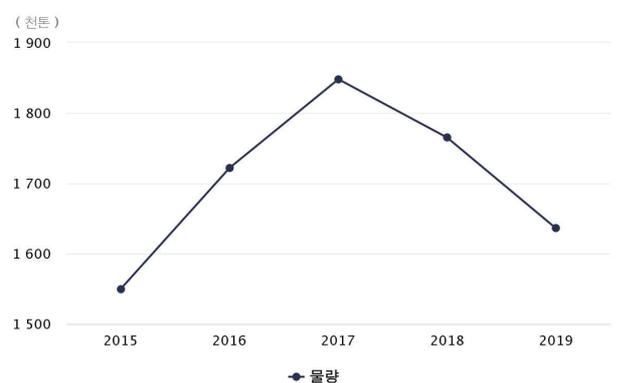
*출처: 한국철강협회

한편, 용융아연도금강판은 2019년 기준 8,161천 톤으로, 2015년 7,798천 톤에서 2019년까지 연평균 1.14% 증가하였다. 2020년의 경우 1월부터 9월까지의 생산량이 5,396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 감소하였으며, 2020년 전체 생산량도 감소세가 예상된다. 또한, 전기아연도금강판은 2019년 기준 1,635천 톤으로, 2015년 1,548천 톤에서 2019년까지 연평균 1.38% 증가하였다. 2020년의 경우 1월부터 9월까지의 생산량이 1,159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하였으며, 2020년 전체 생산량도 감소세가 예상된다.

[그림 8] 국내 연도별 용융아연도금강판 생산량



[그림 9] 국내 연도별 전기아연도금강판 생산량



*출처: 한국철강협회

■ 철강 절단제품 및 냉연강판 국내 시장규모

냉연강판, 열연강판 전·절단 가공제품 등이 속한 국내 철강재 절단제품 시장규모는 2013년 7조 4,059억 원의 시장에서 연평균 1.61%씩 증가하여 2018년 8조 233억 원의 시장을 형성하였으며, 동 기간 시장참여 업체당 평균 출하금액은 211억 원에서 217억 원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또한, 냉연강판의 국내 시장규모는 2013년 13조 7,492억 원에서 연평균 2.31% 감소하여 2018년 12조 2,353억 원의 시장을 형성하였으며, 동 기간 시장참여 업체당 평균 출하금액은 2,925억 원에서 2,309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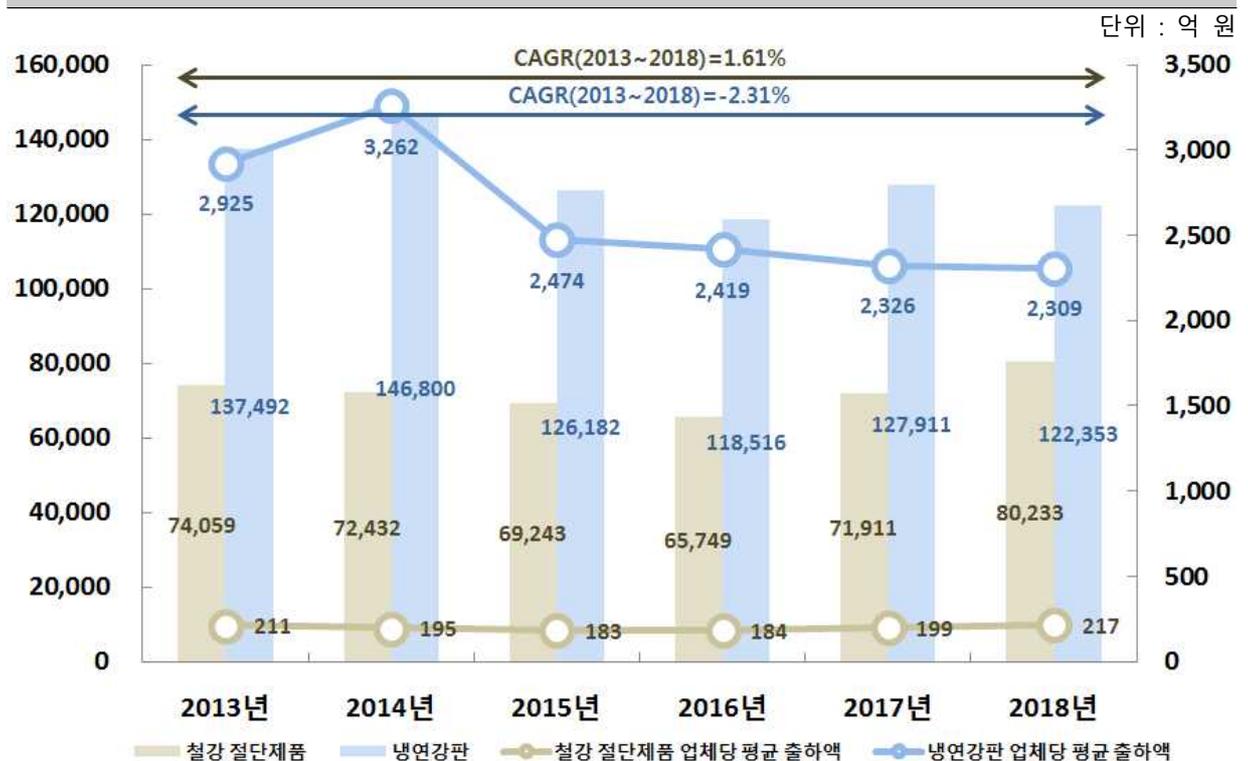
[표 5] 철강 절단제품 및 냉연강판 국내 시장규모

단위 : 억 원, 개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CAGR
철강 절단제품	출하액	74,059	72,432	69,243	65,749	71,911	80,233	1.61%
	사업체 수	351	371	379	358	362	370	1.06%
	평균출하액	211	195	183	184	199	217	0.56%
냉연강판	출하액	137,492	146,800	126,182	118,516	127,911	122,353	-2.31%
	사업체 수	47	45	51	49	55	53	2.43%
	평균출하액	2,925	3,262	2,474	2,419	2,326	2,309	-4.62%

*출처: 통계청 제조업 조사('13~'18)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재구성

[그림 10] 철강 절단제품 및 냉연강판 국내 시장규모



■ 가축분뇨 처리량 및 유기질비료 국내 시장규모

한편, 동사는 자회사를 통해 가축분뇨 처리 및 액비(유기질비료)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가축분뇨 처리량(전국)은 2013년 173,052m³/day에서 2018년 185,069m³/day로 연평균 1.35% 증가하였으며, 제주 지역의 경우 동 기간 5,284m³/day에서 5,216m³/day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업의 국내 시장규모는 2013년 575억 원에서 2018년 1,010억 원으로 연평균 11.93% 증가하였으며, 제주 지역의 경우 동 기간 11억 원에서 39억 원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가축분뇨 수집 및 처리에 이어 생산되는 유기질비료의 국내 시장규모는 2013년 4,560억 원에서 2018년 5,788억 원으로 연평균 4.88% 증가하였으며, 시장참여 업체당 평균 출하금액은 동 기간 45억 원에서 52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 금강에코너지(주)의 2018년 매출규모(약 11억 원)가 큰 편은 아니지만, 가축분뇨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등 비교적 우호적인 환경에 있어 향후 동사의 사세 확장에 일정 수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국내 가축분뇨 처리량 및 유기질비료 시장규모

단위 : m³/day, 억 원, 개(호)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CAGR
가축분뇨	처리량	전국	173,052	175,651	172,870	177,393	176,434	185,069	1.35%
		제주	5,284	5,305	5,259	4,658	4,994	5,216	-0.26%
	농가 수	전국	212,794	213,607	194,823	192,982	201,745	197,026	-1.53%
		제주	1,274	1,274	1,263	1,825	1,273	1,307	0.51%
	시장규모	전국	575	589	726	820	955	1,010	11.93%
		제주	-	11	-	43	33	39	37.22%
유기질비료	출하액	전국	4,560	5,375	5,329	5,278	6,042	5,788	4.88%
	사업체 수	전국	102	107	113	110	116	112	1.89%
	평균출하액	전국	45	50	47	48	52	52	2.94%

*출처: 환경부 연도별 가축분뇨 처리통계, 통계청 제조업 및 서비스업 조사('13~'18) 한국기업데이터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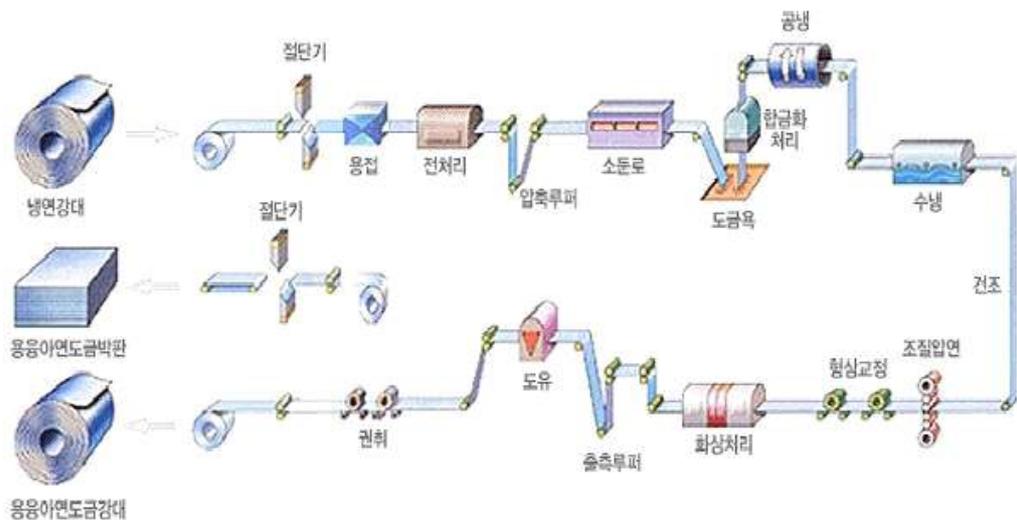
때 표면에 결함을 유발하는 스케일(scale)을 제거하는 공정이고, 냉간압연공정은 제품 용도에 맞도록 상온에서 압연을 진행하여 원 제품 대비 40~90% 정도로 두께를 줄이는 공정이며, 전해탈지는 냉연강판의 압연유와 오염물을 제거하는 공정이다. 또한, 소둔공정은 냉연강판을 열처리하는 공정으로, 압연 시 강판 내부에 변형된 조직을 제어하고 내부 응력(20)을 완화시켜 물리적인 성질을 제어하는 공정이며, 조질압연공정은 소둔공정을 실시한 강판을 1% 가량 압연하여 형상뒤틀림 결함을 방지하고 표면에 미려한 조도를 부여하는 공정이다.

■ 산세도유강판(PO) 및 아연도금강판의 제조공정

산세도유강판은 열연강판을 냉연강판 산세공정에서 염산을 이용하여 표면 스케일을 제거한 후 방청유를 도포한 제품으로, 가공성, 용접성, 도장성이 우수하며, 자동차의 시트 프레임 등에 주로 적용된다. 냉간압연공정 이전 상태의 제품이기 때문에 냉연강판은 아니지만, 후공정을 거쳐 냉연강판 및 아연도금강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아연도금강판(Zinc Coated Steel Sheet)은 아연을 도금한 강판을 총칭하는 것으로, 제조방법에 따라 용융아연도금강판(HDGI, Hot Dipped Galvanized Iron)과 전기아연도금강판(EGI, Electrolytic Galvanized Iron)으로 분류된다. 아연도금강판은 희생양극(21)으로 작용하는 아연도막의 특성 때문에 대기 중 노출 시 산화피막이 형성되어 내식성이 우수하며, 성형성, 용접성, 도장성도 뛰어나 자동차, 건축, 가전제품 등의 내외장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림 12] 용융아연도금강판의 제조공정도



*출처: 금강철강 홈페이지

용융아연도금강판은 열연 또는 냉연강판에 아연을 도금하게 되며, 아연이 녹아있는 욕조에 강판을 투입하여 아연피막을 형성시키는 방법으로 생산된다. 아연의 부착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성형가공 시 도금층의 박리가 잘 일어나지 않아 산업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제조공정은 전처리 → 소둔 처리 → 도금 → 냉각 → 건조 → 조질압연 → 교정 및 도유 → 권취 순서로 진행되며, 공정상 도금액 조성, 도금두께 제어 등의 요소가 핵심적인 기술 노하우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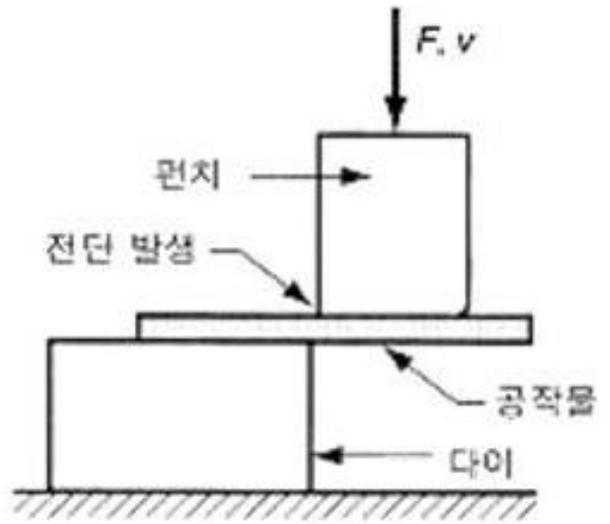
■ 핵심 공정기술 - Shearing

위와 같은 형태로 생산된 다양한 형태의 강판(냉연강판, 산세도유강판, 아연도금강판)은 철강사와 연계된 전국 각지의 서비스센터로 납품되며, 서비스센터에서는 각 산업별, 용도별로 손쉽게 사용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기본적인 가공작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여기서 활용되는 기술이 전단(shearing)과 슬리팅(slitting) 가공 기술이다.

전단 가공은 재료의 절단가공 방법 중 하나로, 재료의 단면과 평행이면서 반대 방향의 힘을 순간적으로 작용시켜 재료를 분리, 절단, 끊어내는 가공법이며, 금속 가공 및 성형 분야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는 기술 중 하나이다. 중소 업체들과는 달리 동사와 비슷한 규모의 (주)포스코 1차 협력업체들은 전단 가공이 라인화 되어 있으며, 코일의 장착, 이동, 절단, 분류 및 출하 작업이 자동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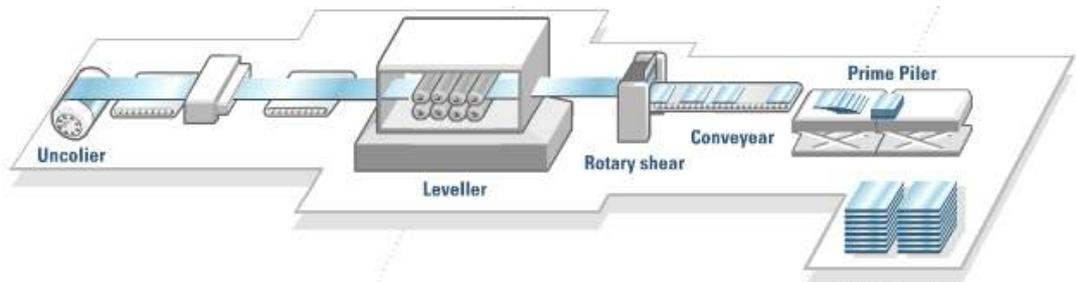
세부적으로는 입고된 코일을 언코일러(uncoiler)에 장착 → 코일이 서서히 풀리면서 레벨러(leveller)에 의한 수평맞춤 작업 진행 → 천천히 라인을 따라 이동되면서 순차적으로 전단 → 가공제품이 라인 밖으로 나와 적치 → 출하 순서로 진행된다. 품질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는 전단면의 버(Burr) 발생 최소화, 치수 정밀도 및 평탄도 확보 등으로, 설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동사의 경우 레벨러, 전단기, 언코일러 등이 모두 연결 및 자동화되어 있어 치수 정밀도(1mm 내외)와 평탄도 확보는 물론, 버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림 13] Shearing Mechanism



*출처: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그림 14] Shearing Line



*출처: 금강철강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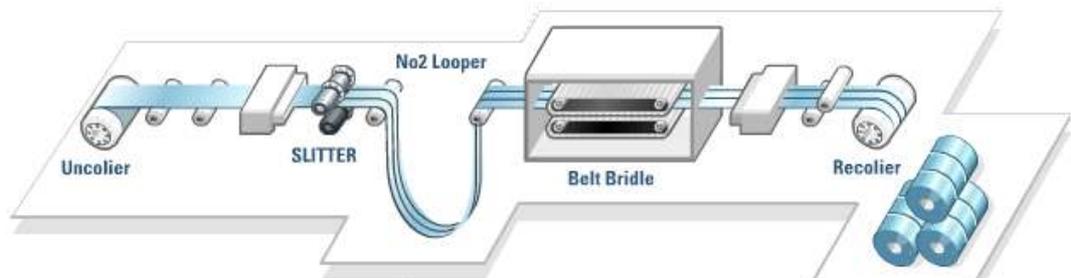
■ 핵심 공정기술 - Slitting

슬리팅 가공은 철강재의 절단가공 방법 중 하나로, 특정 재료를 가늘고 길게 절단하는 방법이며, 주로 철강재 중 강대의 폭을 절단할 때 사용되는 가공법이다. 광폭 형태로 제작된 강대는 고객이 보유한 설비에 따라 바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별로 쪼개어 폭을 줄이기 위한 공정이기도 하다. 금속뿐만 아니라 종이, 필름, 각종 복합재료의 가공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술이다.

슬리팅 작업을 수행하는 장치를 슬리터라고 하는데, 설비의 규모나 취급 폭 측면에서 다소 간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철강업체는 언코일러, 레벨러, 슬리터, 루퍼(looper), 리코일러가 라인화된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단 가공과 마찬가지로 코일의 장착, 이동, 절단, 분류 작업을 자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단 라인과는 달리 슬리팅 라인에서는 루퍼 장치라는 것이 있는데, 루퍼는 권취 이전 당김 현상을 방지하여 폭이 절단된 강판 각각에 대해 길이 편차와 이동속도 편차를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세부적으로는 입고된 코일을 언코일러에 장착 → 코일이 풀리면서 롤러에 의한 이동(레벨러가 있는 경우는 수평맞춤도 함께 진행) → 회전 커터에 의한 절단 → 루퍼 → 리코일러(recoiler)에 의한 권취 → 출하 순서로 진행된다. 품질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는 전단과 마찬가지로 전단면의 버 발생 최소화, 치수 정밀도 확보 등이며, 모두 설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동사의 경우 안산공장에서 15~1,860mm의 폭을 갖는 강판을 분당 150~230m의 속도로 연간 약 396,000톤 연속 절단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그림 15] Slitting Line



*출처: 금강철강 홈페이지

■ 액비 생산을 위한 슬러지 처리 기술

가축분뇨는 작물에는 영양원에 해당되지만, 환경적으로는 오염원으로 인식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축분뇨는 유기성폐기물에 속하며, 유기성폐기물은 건량기준으로 유기물함량이 40%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가축분뇨를 화학비료의 대체물질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퇴비화, 액비화 등의 방법이 있으며, 퇴비화는 고상분뇨의 유해성분과 수분제거 및 발효, 교반, 송풍, 일광 등의 공정을 거쳐 사용하는 것이고 액비화는 액상분뇨의 유해성분과 수분제거 및 발효, 교반, 폭기 등의 공정을 거쳐 사용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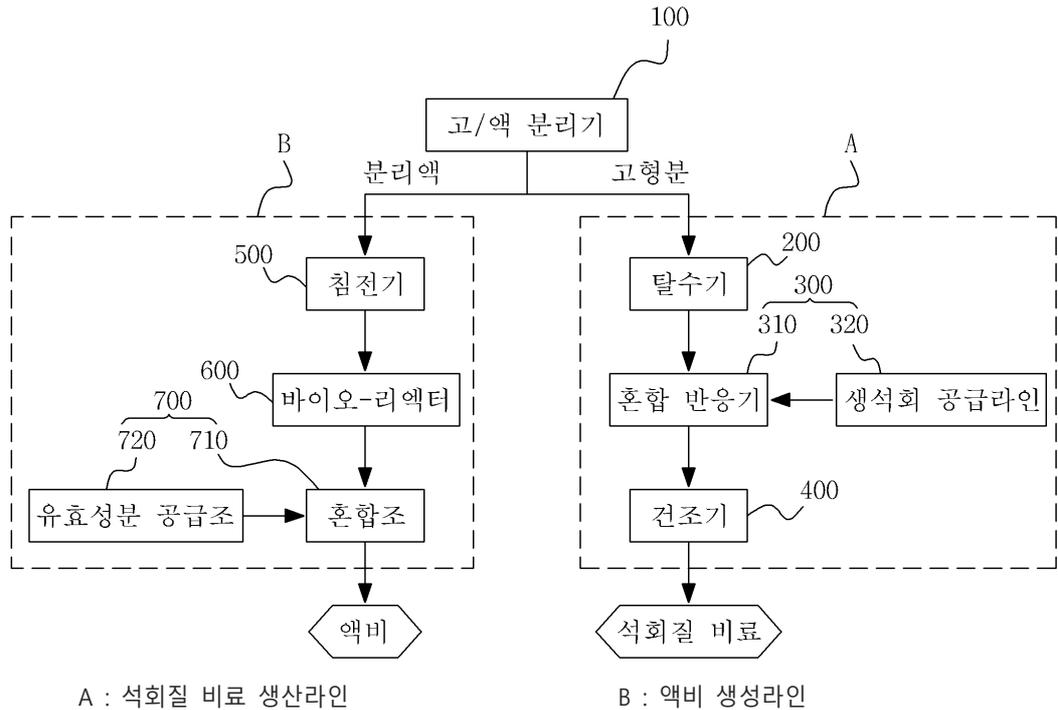
액비는 원예작물의 비료 등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악취 및 유해성분이 제거되도록 충분히 발효 과정을 거쳐야 하며, 성분 균질화를 위해 교반공정도 권장된다. 특히, 가장 중요한 공정은 가축분뇨의 슬러지 처리 공정인데, 이는 전체 액비 생산공정에서 많은 비용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동사의 자회사 농업회사법인 금강에코너지㈜는 슬러지 처리를 위한 고액분리, 건조, 침전과 관련된 특허권 ‘슬러지 처리장치 및 처리방법(10-1063207)’을 보유하고 있다. 동 특허 기술은 하·폐수, 분뇨 등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슬러지를 액비 및 석회질 비료로 비료화시킴으로써, 슬러지를 비료의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슬러지 처리비는 함수율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함수율을 낮추면 케이크(탈수된 고농축 슬러지) 발생량이 감소되며, 케이크의 폐기를 위한 해양이나, 소각 또는 육상 매립지로의 운송비가 절감된다. 기존에는 함수율을 낮추기 위해 건조 공정에서 에너지와 시간을 많이 투입하였으며, 고형분을 분리한 처리수를 방류하거나 건조된 고농축 슬러지를 소각, 매립을 통해 폐기하고 있어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동사의 자회사는 고/액 분리기로부터 분리된 농축 슬러지를 탈수한 다음, 석회질 비료 생성기를 통해 석회질 성분이 함유된 비료를 만들고, 액상 처리수는 미생물을 이용하여 오염물질 제거하며, 최종적으로는 액비 생성기를 통해 액비화함으로써 슬러지 내에 포함된 유기물을 비료의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특히, 석회질 비료 생성기, 미생물 활성화에 의한 오염물질 제거공정, 액비 생성이 최적화되어 있어 높은 슬러지 처리 및 비용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림 16] 슬러지 처리장치 구성도



*출처: 특허청

■ 생산역량

생산인력은 철강 소재의 기계적 특성, 물리적 특성, 화학적 특성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기반 기술인 전단, 슬리팅 가공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수준이며, 축적된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요처가 요구하는 조건과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생산설비의 경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에 위치한 본사(대지 약 8,000평, 건물 약 5,000평, 자가)에 Rotary Shearing Line, Mini Shearing Line, Slitter 등 라인화된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냉연강판과 열연강판 전 사이즈를 연간 최대 약 77만 톤 처리할 수 있는 생산설비와 숙련된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비료 생산의 경우 제주도 자가 사업장(대지 약 3,600평, 건물 약 1,100평)에서 액비는 연간 45,000톤, 퇴비는 연간 9,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림 17] 현장 전경



*출처: 금강철강 홈페이지

IV. 재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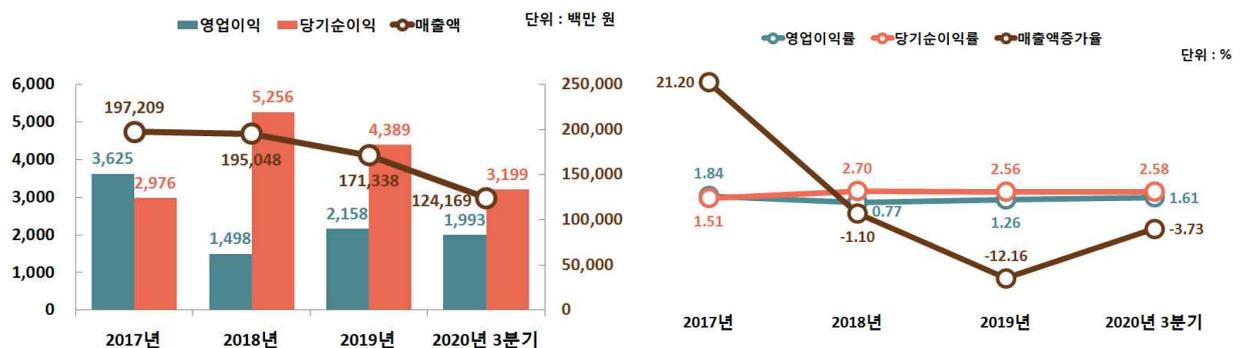
철강 사업부문 매출은 감소 추세, 안정적인 재무구조 확보

동사의 매출액은 최근 3년간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철강제품의 매출은 꾸준하였으나, 철강상품의 매출이 감소하였다. 영업이익률은 소폭이지만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고 자회사의 사업은 규모는 작지만 향후 전망은 밝은 편으로 판단된다.

■ 최근 3년간 매출은 연속 감소

동사의 전체 매출액은 2017년 1,972억 원, 2018년 1,950억 원, 2019년 1,713억 원으로, 동기간 동안 철강제품의 매출은 꾸준하였으나, 철강상품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매출액이 감소하였다. 2020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73% 감소한 1,242억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철강재 수요량 감소 등의 악재 요인이 있었으나, 2019년 약 12%의 매출액 감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나은 모습이다. 액비매출의 경우 아직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2018년,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10억 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퇴비 및 액비 사업 외에도 바이오가스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사업 등 연관 사업의 확장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향후 동 사업부문의 매출 성장세가 기대된다. 2018년에 0.77%를 기록한 이후 2019년 1.26%, 2020년 3분기 1.61%로 소폭이지만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8]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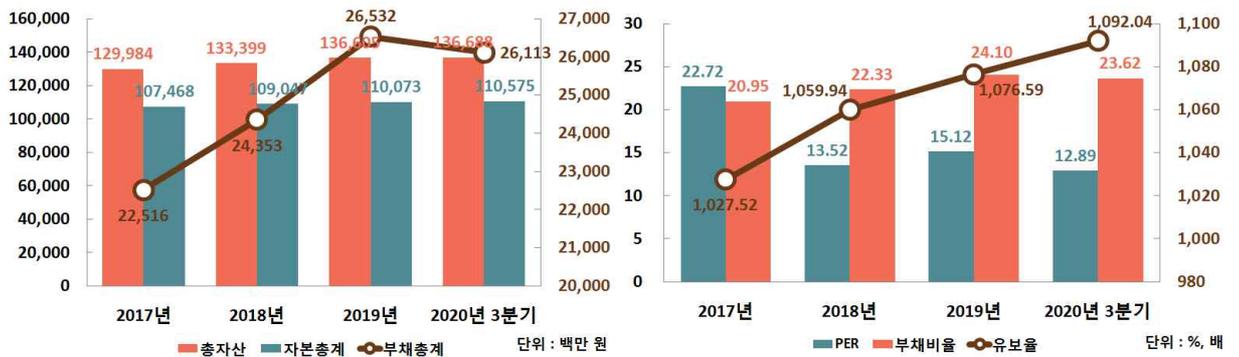


*출처: 금강철강 연도별 사업 및 분기보고서, 한국기업데이터 재구성

■ 재무구조가 안정적

2020년 3분기 말 기준 부채비율은 23.62%로 2017년부터 꾸준히 낮은 수준(20%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본유보율은 1,000% 이상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20년 3분기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약 218억 원으로 최근 3년 중 가장 많고 유동비율은 415.95%로 높아 전체적으로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수준이다. 한편, 주가수익비율(PER)은 2019년 말 15.12배에서 2020년 들어 낮아지고 있으며, 동일업종 PER(44.29배)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19] 재무상태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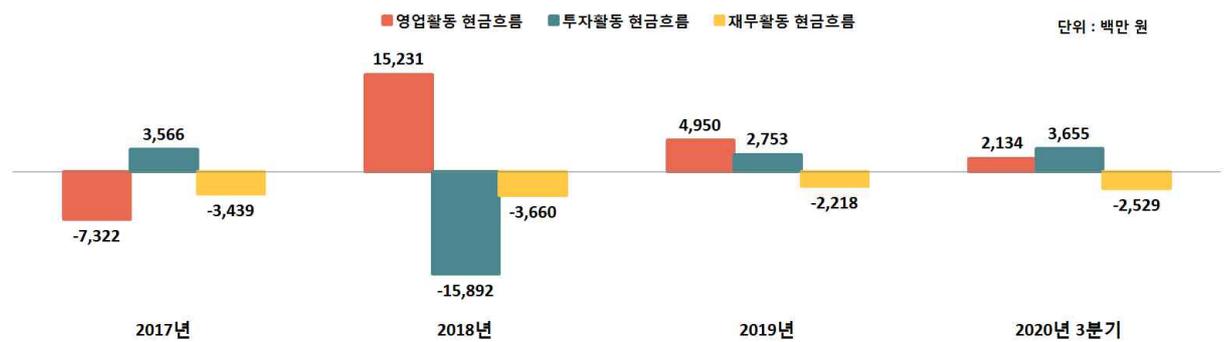


*출처: 금강철강 연도별 사업 및 분기보고서, 한국기업데이터 재구성

■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정(+의) 추세 유지 중

2019년 정(+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2020년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으나, 그 규모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2018년에 금융자산의 취득 등 비교적 큰 규모로 투자활동이 이루어졌으나,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투자활동은 많지 않은 편이며, 금융자산의 감소분 또한 커서 전체적으로는 상쇄되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외부 차입보다는 기존 부채의 상환규모가 커 재무활동 현금흐름은 2017년부터 꾸준히 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림 20] 현금흐름의 변화



*출처: 금강철강 연도별 사업 및 분기보고서, 한국기업데이터 재구성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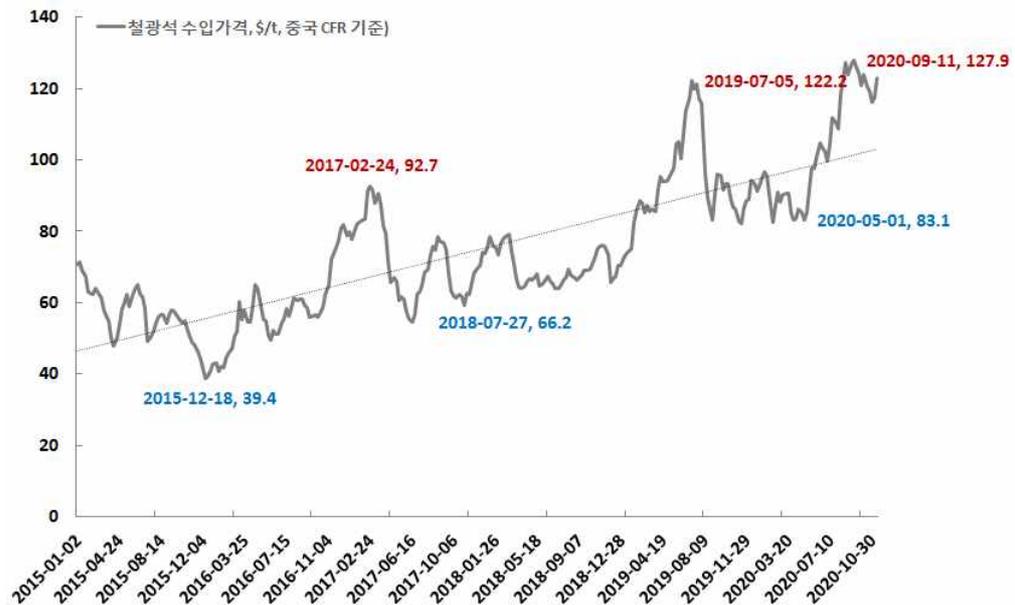
철광석 시세는 고점 갱신 중, 가축분뇨 처리단가 최근 상승 중

동사의 사업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철광석 시세는 최근 5년간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고점을 갱신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처리단가는 최근 들어 상승세를 보이면서 사업실적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철광석 수입가격은 최근 5년간 상승 추세

동사의 사업실적에서 중요한 요소는 외부요인에 해당되는 철광석 시세와 (주)포스코의 가격정책에 따른 3대 강판(냉연, 산세, 아연도금)의 매입가격이며, 2가지 요인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철광석 가격(중국 CFR 기준)은 주별로 고시되고 있는데, 고로를 보유한 (주)포스코와 현대제철(주)는 철광석 수입가격의 등락에 따라 냉연강판의 가격을 인상 또는 인하 적용하고 있다. 특히, 수요와 가격 측면에서 세계적인 경기변동에 따른 수요 증감과 철광석의 생산량, 철강재 재고량의 변동 등에 따라 가격이 수시로 변동되고 있어 과거와 현재 및 미래 시세 예측자료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림 21] 철광석 시세 추이



*출처: 한국광물자원공사 철광석 수입가격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재구성

철광석 수입가격은 2015년 1월 첫째 주 70.6\$/t에서 2015년 12월 39.4\$/t까지 하락하였다가 2016년에는 회복세, 2017년에는 상승세를 보였다. 2018년은 다소 간 침체 상태를 나타내다가 11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9년 7월에는 122.2\$/t를 기록하였으며, 8월부터 다시 급락하였으나, 코로나19가 약간 소강상태를 보인 2020년 5월부터는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9월에는 수집 기간 내 최고점인 127.9\$/t를 기록하였으나, 10월 들어 소폭 하락하다가 11월 들어서는 다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다(11월 13일 122.94\$/t).

한편, 동사가 (주)포스코 등으로부터 매입하는 냉연강판 가격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감소하였다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산세코일 또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연도금강판의 경우는 2016년 이후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각국의 봉쇄조치 해제 및 경제 정상화 등에 힘입어 2021년에는 철강 수요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여 향후 동사의 매출실적 증가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연도별 냉연 및 산세코일 매입가격

단위 : 원/톤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3Q
냉연코일	897,833	842,105	709,218	649,086	740,319	734,188	749,803	734,188
산세코일	824,630	779,117	673,704	565,671	689,856	686,811	698,594	686,811
아연도금강판	976,535	906,541	853,415	803,267	859,690	814,861	847,272	814,861

*출처: 금강철강 연도별 사업 및 분기보고서, 한국기업데이터 재구성

■ 가축분뇨 처리단가는 최근 상승세

자회사의 가축분뇨 수거, 처리 및 액비 사업은 서비스 및 제품가격이 점차 상승하고 있다. 퇴비의 경우 수년간 변화가 없지만, 분뇨 수거·살포의 경우 2013년부터 연평균 10.41% 증가하여 2020년 톤당 30,000원 수준이다. 가축분뇨 처리는 폐기물 처리 산업에 속하기 때문에 정부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폐기물 처리업체의 설비투자가 뒤따르고 이는 처리단가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특히, 경쟁업체가 제한적이고 후발주자 또한 진입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수요자보다는 처리업체가 협상의 우위를 선점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며, 가격 전가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표 8] 연도별 분뇨 수거 및 살포, 퇴비 가격 추이

단위 : 원/톤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CAGR
분뇨 수거·살포	15,000	15,000	15,000	15,000	17,250	28,000	30,000	30,000	10.41%
퇴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0.00%

*출처: 금강철강 연도별 사업 및 분기보고서, 한국기업데이터 재구성

한편, 제주도에서는 지하수 오염과 악취 차단이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2020년 상반기에 가축분뇨 관리 종합계획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액비 살포 시 액비 살포지가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하는 것과, 액비 품질 기준을 비료공정 규격으로 일원화하고 액비 살포 전 시비 처방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것이다. 단기간에는 기준 강화가 처리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검증된 품질로서 액비가 진정한 비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자회사의 사업 또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증권사 투자 의견

※ 해당사항 없음.